

LG화학, GM의 PC·ABS 승인 획득

자동차 내외장재용 납품소재로 승인 ... 별도 테스트 없이 납품 가능

LG화학은 미국 GM(General Motors)으로부터 자동차 내외장재 부품에 주로 적용되는 PC(Polycarbonate)·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에 대한 소재 승인(Material Approval)을 획득했다고 6월22일 발표했다.

LG화학은 소재 승인을 토대로 미국 뿐만 아니라,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Shanghai 및 국내 GM 관계 기업들에 제공하는 자동차부품에 별도 테스트 없이 PC·ABS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세계 자동차부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큰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는 점도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LG화학 관계자는 “국내기업이 생산하는 PC·ABS가 GM으로부터 정식으로 소재 승인을 획득한 것은 처음”이라며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소재 승인은 자동차부품에 쓰이는 소재를 완성 자동차기업이 사전에 시험하고 승인해 줌으로써 관련부품 기업들이 별도의 까다로운 승인 절차 없이 해당 소재를 사용해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다. (서울=연합뉴스 고희규 기자) <저작권(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6/23>